

## **“Photographs that disengage us from ourselves” – Akiko Otake**

One thing I notice when I look at the photographs in *Alone Together* is that there are people in all of them, but not a single one of the photographs is shot at the distance you would expect when ordinarily engaging with other human beings. I have been taken with this fact for quite a while now.

Most of the human figures in the photographs are faraway and therefore small. Spaces with no human beings in them, instead filled with water, sky, rocks, account for most of the scenes. At first glance, you don't see anyone in the shot, but at a second closer look, you spot a lonely human figure in the corner.

Some of the people were photographed at close range, but they are deliberately out of focus and their image is blurred. Sometimes, they are vaguely vibrating because they are in motion – diving into the water or sitting in a moving car. The feeling I get from this is that Mi-Yeon is not at all concerned with emphasizing the presence of people in her photographs. On the contrary, she attempts to make them diaphanous, to suspend them in the air, something that is represented symbolically in her multiple-exposure photographs of human figures standing in a street. The individual figures of the people overlap each other and their outlines dissolve, merging into the landscape to form another kind of presence.

In many of the photographs we see the sea or sky or rocks featured big, but do not get the sense that the people are being swallowed up by them. This is perhaps because, even at a distance, the photographer's gaze is fixed on the human figures.

Someone sitting on the jagged rocks holding a sun umbrella. Some men standing in the water about to catch a beach ball that is up high in the sky above them. Two people travelling through the water in a boat that leaves a trail of white foam in its wake.

As Mi-Yeon stares intently at the human figures, the people in the photographs stare at something faraway and imperceptible to us. The same is true of the photographs of the black silhouette of a line of people.

Mi-Yeon wrote the following in the preface:

“When in a large crowd of people, “I” vanishes.

Within the “countless I's,” the “big I.”

I sense that she does not feel afraid about her “I” vanishing, that she even welcomes that experience, but when I read her words, a thought crossed my mind. That maybe it was through photography that she came to have this feeling.

When we stare at something, we go right inside the thing we are staring at. We become one with the object, for the most part without even realizing it, and have the experience of ourselves disappearing. The smaller the object on which our eyes are trained, the more concentrated the object becomes, like looking at something through the eye of a needle, and the extinction of “I” is achieved.

The act of taking photographs is nothing other than looking at the photographed object over and over again.

Through this repetitive act, the feeling that we are liberated from the self, a self that is bound to “I,” and step out into the world is experienced visually in the form of joy.

The fundamental qualities of a photograph are presented by Mi-Yeon as a single idea in Alone Together.

– Akiko Otake (Writer)

### “私”から離れていく写真 — 大竹昭子 (作家)

『Alone Together』を見て気づくのは、すべての写真に人が写っているということ、けれどもその人物像にふだん私たちが人と接するときの距離で撮られたものはひとつも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ことの不思議がさっきから私の心をとらえている。多くの人影が遠くにいて小さい。水辺や空や岩場など、人のいない空間が画面の大半を覆っており、はじめはだれもいないように思うが、よく見るとその一角にぽつんと人の姿がある。近距離で写されたものもあるが、それらはフォーカスが外され、像はボケている。水中に飛び込む人や、走行中の車に乗っている人など、動いているために像が揺れてぼんやりしている場合もある。ここから感じ取れるのは、ミーヨンに人間の存在感を際立たせようという関心はまったくないということだ。むしろ孢子のように軽くし、宙に浮かばせようとしている。そのことは街路に立つ人影を多重露光している写真に象徴的に現れている。複数の人の姿が重なり、輪郭が溶けて、等価な存在として風景のなかに混じり込んでいる。

海や空や岩場が大きく写っている写真が多く見られるが、かといって人々がそれに飲込まれているような感じは受けない。それは、距離を置きながらも、それらの人物に目が凝らされているからだろう。尖った岩の上で日傘をさしている人。空高く上がったビーチボールを海の中に立って受けようとする男性たち。白い航跡を引いて旋回するボートに乗る二人組……。ミーヨンはそれらの人影をじっと凝視し、写されている彼らもまた私たちにはうかがい知れない遠い何かを見つめている。たくさんの人たちが黒いシルエットになって並んでいる写真でもおなじで、彼らの視線はひとつのものに注がれている。序文のなかでミーヨンはこのように書いている。

「大勢の人のなかにいると、私は消えてしまう。

“無数の私”、“大きい私”のなかに。」

“私”が消えてしまうことに恐がなく、むしろその状態を迎え入れようとしているように感じるが、この言葉に接したとき、ひとつの思いが心のなかをよぎった。もしかしたらこの感覚は彼女が写真を通じて知ったものなのではないかと一。何かをじっと見つめるとき、人はその見つめるものの中に入っていく。ほとんど気づかぬうちに対象物とひとつになり、自分が消えていく感覚を味わっている。視線がむけられる対象は小さければ小さいほど、針の穴を通り抜けるように見る集中度は高まり、“私”の消滅は達成されるのだ。

写真を撮るという行為は、撮られた対象を繰り返し見ることにほかならならない。その反復により、“私”に拘泥する自分から解放され、世界のほうに歩みだしていく感覚を、歓びとして体に刻み込んでいく。写真が本源的にもっているこの特質を、ミーヨンは『Alone Together』においてひとつの思想として提示している。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사진’ - 오타케 아키코 (작가, 사진평론가)

『Alone Together』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진에 사람이 비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인물들은 평소 우리들이 사람과 접할 때의 거리로 찍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것의 불가사의가 조금 전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많은 사람의 모습이 멀리에 있어서 아주 작다. 물가나 하늘이나 바위 등, 사람이 없는 공간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것지만, 잘 보면 그 일각에 우두커니 사람의 모습이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찍혀진 것도 있지만, 그것들은 초점이 이탈되어 상이 흐릿하다. 수중에 뛰어드는 사람이나 주행 중의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등,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이 흔들려서 흐릿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미연에게는 인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하는 관심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투명한 포자와 같이 가볍게 해, 공중에 뜨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거리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다중노광한 사진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사람들의 모습이 겹치고, 윤곽이 녹아서, 등가인 존재로서 풍경 안에 뒤섞여있다.

바다나 하늘이나 암석군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사진이 많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삼켜지고 있는 느낌은 받지 않는다. 그것은, 거리를 두면서도 그 인물들에게 눈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뾰족한 바위 위에서 양산을 쓰고 있는 사람, 하늘 높이 올라간 비치볼을 바다에 서서 받으려고 하는 남자들, 흰 뱃길의 흔적을 그리며 선회하는 보트를 탄 2인조….

미연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그시 응시하고, 사진에 찍혀진 그들도 또한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먼 무엇인가를 지그시 응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실루엣이 되어 줄 지어 있는 사진에서도, 그들의 시선은 한곳에 쏠려 있다. 서문에서 미연은 이렇게 쓰고 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나는 사라져 버린다.

‘수많은 나’, ‘큰 나’ 의 안으로.

‘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두려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이 말에 접했을 때, 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어쩌면 이 감각은 그녀가 사진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닐까라는….

뭔가를 지그시 응시할 때, 사람은 바라보는 그것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거의 감지 못하는 사이에 대상물과 하나가 되어 자신이 사라져가는 감각을 맛보게 된다. 시선이 향해진 대상이 작으면 작을수록 바늘구멍을 빠져 나가는 것처럼 보는 집중도는 높아지고, ‘나’의 소멸은 달성되는 것이다.

‘사진을 찍다’라는 행위는 찍혀진 대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반복에 의해, ‘나’에 구애하는 자신에게서 해방되어, 세계에 향해 걷기 시작하는 감각을 기쁨으로서 몸에 새기게 된다.

사진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미연은 『Alone Together』에서 하나의 사상으로써 제시하고 있다.